

들어봅시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새마을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G7 선진국 시대 열겠다”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각당이 후보 선출을 위한 대선 레이스에 본격 돌입했다. 이에 본지는 여야 대선 후보들의 자질과 정책, 공약 등을 비교 검증하기 위한 릴레이 인터뷰를 실시한다. 예비경선을 거쳐 본 경선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 홍준표 예비후보를 만났다.

-이번 대선에 출마하게 된 이유와 어떤 대통령이 되고 싶은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방향을 바로잡아 '정상 국가'를 만들겠다는 생각에서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게 됐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거쳐 당당하게 G7의 일원이 됐다. 1960~1970년대 산업화를 이룩했으며, 1980년대 민주화, 1990년대 정보화를 거쳐 중진국 반열에 진입했다.

불행히도 문재인 정권 출범 이래 포퓰리즘의 망령이 살아나 나라를 휘감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정권교체를 위해선 유능한 선장이 필요했고, 그 적임자가 저 홍준표라고 생각한다.

-주요 대선공약에 대해 설명해 달라.

▲G7 선진국 시대를 열겠다. 이를 위해 정치 행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대통령 중임제와 행정구조 2단계 개편이 대표적이다. 인공지능(AI)와 불특체인,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행정 시스템을 도입해 국정 효율을 높일 것이다. 또 공공 일자리가 아닌 민간 일자리 도입을 위해 집중하겠다.

무너진 공정을 바로 세우겠다. '촛불 정권'이라 천명한 문재인 정부를 둘러

싼 각종 의혹에 국민들은 이미 실망했다. 바로잡기 위한 일환으로 정치 제도 일원화,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3시) 의과대학 부활을 추진하겠다.

사정기관 개혁을 추진하겠다. 국가정보원의 대북 정보 수사기능을 유지하면서, 국익 수호를 위해 해외 분과를 확장하겠다. 경찰을 '한국의 FBI'화하고, 감사원에는 직무 회계 감사능력을 높이기 위해 계좌 추적권을 부여하겠다. 대북 정책 기조는 상호 불간섭주의와 체제 경쟁을 위주로 하는 독일식 통일 정책을 추진하겠다.

-홍준표 후보가 타 후보와 차별화된 점은 무엇인가.

▲타 후보들과 구별되는 점은 위기에 강하다는 것이다. 2011년 당시에도 4·27 재보선 패배로 당이 내홍을 겪고 있을 때 당 대표로 선출돼 당을 이끌었다. 지난번 대선은 그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치러진 선거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이어 두 전직 대통령

대통령 중임제·행정구조 2단계 개편
정치제 일원화...사법·행정·외무 부활
무안공항 확장...반도체 집적단지 조성

의 구속 수감으로 보수진영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이반은 상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의 키를 잡았다. 4%까지 떨어졌던 당을 대선에서 24.03% 득표율을 얻는 정당으로 재도약 시켰다.

-홍준표 후보가 있기까지 삶의 원천은 무엇이고,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제 삶의 원동력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다. 제 사전에 포기하는 없었다. 그 결과 당당히 대한민국 검사가 됐고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당 대표가 됐다. '불의에 굴하지 않을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저는 부당한 것을 보면 참지 않고, 잘못된 것을 보면 피아를 가리지 않는다.

-최근 지지를 상승의 원인은 무엇이고, 향후 경선을 전망 한다던.

▲일각에선 역선택에 의한 지지를 상승이란 이야기가 나오지만 제 생각은 다르다. 당이 가장 취약한 20~40대에서 강세고, TK(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하고 골고루 지지를 받고 있다. 호남·진보층 지지율이 높다고 역선택을 운운하는 건 분석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경우를 확장성이라고 한다. 향후 경선 정국에는 분명히 제가 이길 것이라고 자신한다.

-광주·전남 최대현안은 무엇이고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싶은 사업은.

▲무안 국제공항의 활성화를 통해 광주·전남 지역의 하늘길을 열자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은 확장에도 불구하고 포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전남은 물론, 충청권에서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이 필요한데 무안공항이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대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활주로는 3,800m 이상으로 확장하는 것 등을 고려하겠다. 무안공항이 활성화 되면 공항을 주변으로 반도체 집적단지들이

어설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반도체 집적 단지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이유는 항공교통 때문이다. 무안공항을 확장하고, 반도체 집적 단지가 들어서면 당연히 지역 대학에서 주요 인재를 확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지역민들에게 할 말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역민심이 좋은 것은 직시하고 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탄압한 그 세력과 국민의힘은 절연하지 오래다. 그리고 망월동묘역 국립묘지 기를 마련한 5·18 특별법을 만든 것도 김영삼 전 대통령이였다. 광주의 아픔을 이해하고 지역민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 싶다. 더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셨으면 좋겠다. /서울=강병운 기자

이낙연 “군공항 이전 국가주도로 추진”

무등산 방공포대, 마륙동 공군탄약고 ‘폐키지’
이전 부지 미래 먹거리 터전 스마트시티 건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후보는 광주 군공항 이전을 정부 주도로 조기에 추진할 것임을 대선 공약으로 밝혔다.

이 후보는 23일 “현재 군공항 이전방식으로는 실행 여부를 가늠하기도 힘들 뿐더러 만약 이전 한다고 해도 수익성을 맞추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만약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할 경우 광주시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 250만평(8.2km)에 이르는 군공항 부지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그동안 많은 일을 지자체에 맡기고 정부는 뒤에서 도왔다. 그런 방식은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면서 “이제는 방식을 정부 주도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또한 군공항 수용지역 주민의 반대에 대해서는 “군공항 수용지역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로 확보된 군공항 터는 “송정리, 영산강, 황룡강 일대 까지를 포함 미래 먹거리의 터전을 갖춘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고 광주시, 시민사회와 협의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공약대로 이뤄질 경우 광주는 군공항의 이전과 함께 세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선 무등산 방공포대 부지의 이전을 서두를 수 있다. 방공포대부는 이미 수년 전 이 이전키로 했으나 군공항 이전 논의와 결부되면서 자동적으로 유보돼 왔다. 방공포대 이전은 무등산 환경생태와 직결된다. 현재 무등산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면서 무등산 서석대에서 정상, 북봉, 신선대에 이르는 정상권의 생태복원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 따라서 방공포대가 이전될 경우 생태복원과 함께 세계 지질공원으로서의 면모도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륙동 공군탄약고 이전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다. 마륙동 공군탄약고는 약 65만평(217만㎡)에 달한다. 이 역시 군공항 이전에 묶여 현 공군부대 인근에 이



전부지까지 마련해 놓고도 수년째 이전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마륙동과 금호동 일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함께 지역 개발까지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군공항 이전이 조기 해결되면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군공항 및 민간공항으로 인해 공항 주변 수백만평 땅이 고도제한지역으로 묶여 지역개발을 저지시키고 있다. 군공항 이전이 정부주도로 조기에 해결되면 이 지역에 대한 이상적 도시개발이 가능해 지므로 군공항 부지와 함께 스마트시티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시티는 주거, 업무빌딩, 에너지, 모빌리티 등 도시 시스템에 인공지능과 각종 첨단기술을 도입해 업무와 휴식, 기후·에너지 문제 해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농업 등 스마트 시스템을 갖춘 미래 도시를 말한다.

즉 국가적 미래도시 모델로서 견본도시를 만든다는 것이 이 후보의 구상이다. /서울=강병운 기자

전남도립대, 고교·교육청 등 협력 강화

전남도립대학교는 담양고, 담양공고, 창평고, 한빛고 등 담양지역 고등학교 및 담양교육지원청과 고교·대학 연계교육 활성화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학생연구가 급감하고 지역 학생의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지방 대학이 위기를 맞음에 따라

고교·대학 간 경계를 허물고 지역 학생을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체결됐다.

전남도립대는 올해 6월 전남도교육청과, 지난해 담양교육지원청과 각각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활성화 업무협약을 했다. 도립대가 보유한 우수 자원과 인력을 활용, 지역 고등학생에게 ‘고교·대학 연계프로젝트’를 운영해 참여 학생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다.

박병호 전남도립대총장은 “지역 인재 양성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위해 대학-고교-교육청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자원 공유 및 교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립대는 2022학년도 모집정원 645명 중 수시모집 기간에 신입생 626명을 선발한다. 수시 1차는 오는 10월 4일까지, 수시 2차는 11월 8일부터 22일까지 모집한다. /길용현 기자

M 전남매일 임산부의 날 캠페인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



임산부는 임신기간 호르몬의 변화로 입덧과 구토, 과다한 피로감, 우울감 등 몸과 마음이 힘들 수 있으며, 특히 걸로 구분이 잘 안 되는 임신 초기에는 무리한 활동이나 스트레스가 유산의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산부 배려, 우리 모두 함께해요

- 임산부 배려석은 비워두거나 양보하기!
- 출서기를 하고 있다면 임산부에게 순서를 양보해요!
- 모두에게 해로운 담배, 임산부에게는 특히 더 조심해요!
- 직장에서 임산부에게 무리한 근무와 스트레스는 금물!
- 출산 전·후 휴가와 단축근무 신청은 당연한 권리!

본 캠페인은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

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

인구보건복지협회광주전남지회가 함께합니다

정기 브리핑

김희재, 내일까지 여수서 의정보고회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여수·울)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제21대 국회에서 지난 1년 여간 의정활동 성과를 시민들에게 찾아가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 의원의 주요 활

약상과 의정활동을 통해 이뤄낸 지역 주요 사업 및 성과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다.

의정보고회에서 김 의원은 여수의 숙원사업 이었던 ▲전라선 KTX 고속철도 사업 확정 ▲여수사건 특별법 제정 ▲여수-남해 해저터널 사업 확정 ▲수서발 SRT



전라선 등을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김 의원은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뤄 낸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 드리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